

코로나19 대응체계에 있어 취약계층 : 역학조사 과정을 중심으로

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

이희영

2020.09.28

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누구인가?

- 누가 취약계층이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는가?
- 보이지 않는 약자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
- 코로나19는 사회의 약한 고리와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
- 경기도 조사에서의 결과
 - 코로나19의 장기화, 더 취약한 계층 있다.
 - 확진자와 접촉자,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다.

코로나19 대응체계

감시체계

검사

역학조사

출입국/
접촉자관리

확진자 진료

위험소통
/시민참여

사회적 거리두기

감염관리
(의료시설/일반)

연구/개발

인력/자원(병상,
물품, 운송 등)

공중보건 조치
(정신건강, 건강
행동 등)

필수 의료서비스
유지

사회적 대응

모니터링/분석/위험평가/계획

거버넌스/의사결정체계

(+) 코로나19 심리조사 개요

	경기도민	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
조사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(*) 6/2 기준 조사대상자: 확진자 1,054명, 접촉자 25,450명
조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: 2020년 5월 18일~22일 2차: 2020년 7월 17일~27일 3차: 추석 직후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년 5~6월
조사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서적 상태와 스트레스 도의 대응정책 인지도 생활방역 실천에 관한 사항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염경로와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위험인식 및 감염귀인 정서적 상태와 스트레스 확진자 및 접촉자 지원책 등
조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웹 조사(이메일,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URL 발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웹 조사(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URL 전송)
응답자수(응답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당 약 2,500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확진자 110명, 접촉자 1,388명 (확진자 10%, 5%)

코로나19의 장기화, 더 취약한 계층 있다

정신건강과 일상회복에 더 취약한 그룹

- 6개 지표*를 통해 분석한 결과, 여성과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, 그리고 30대와 50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‘일과 삶의 부정적 영향권’에 공통으로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정신건강(우울), 자가격리 시 문제 사안, 일상회복, 코로나19와 관련한 걱정거리, 일자리/임금, 코로나19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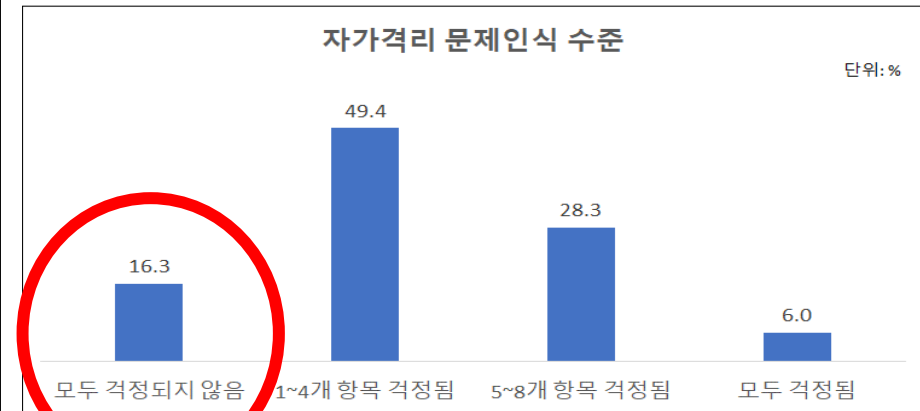
정신건강과 일상회복에 더 취약한 그룹

지표	기준 문항 (점수 기준)	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
정신건강(우울)	GHQ-9 관련 9개 문항 총 평균 점수 (높을수록 부정적 영향)	여성, 30대, 자영업/판매·영업·서비스직, 월소득 200만원 미만
자가격리 시 문제 사안	9개 사안 모두 문제라고 응답한 집단 내 분포	50대, 기타직/판매·영업·서비스직
일상회복	일상회복 문항 평균 점수 (낮을수록 부정적 영향)	여성, 30대, 무직·퇴직·은퇴/주부, 월소득 200만원 미만
코로나19 걱정	코로나19 걱정 관련 10개 문항 총 평균 점수 (높을수록 부정적 영향)	여성, 자영업/판매·영업·서비스직
일자리/임금	“일자리 잃었다”라고 응답한 집단 내 분포	여성, 50대, 월소득 200만원 미만
코로나19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	문항 평균 점수 (높을수록 부정적 영향)	여성, 주부, 30대, 월소득 200만원 미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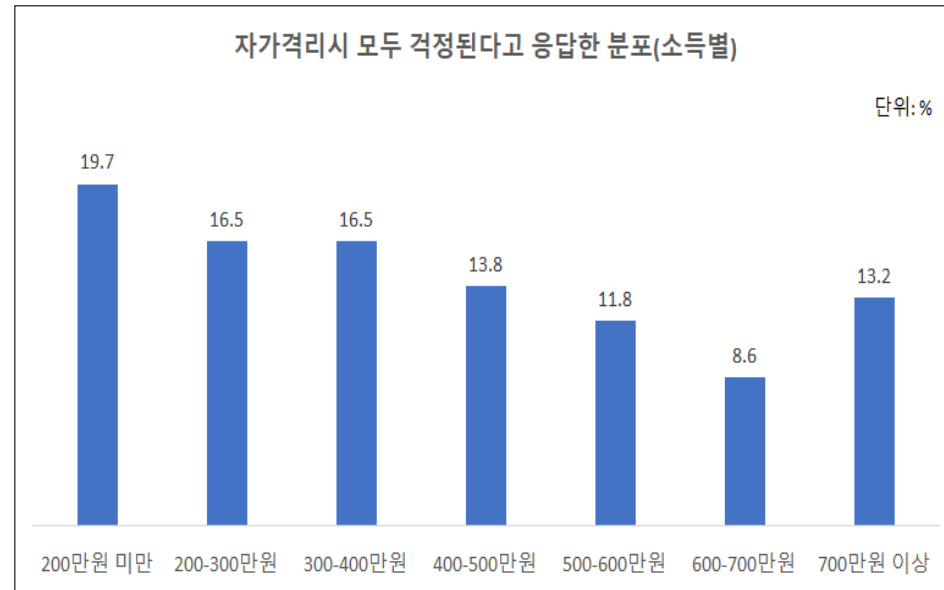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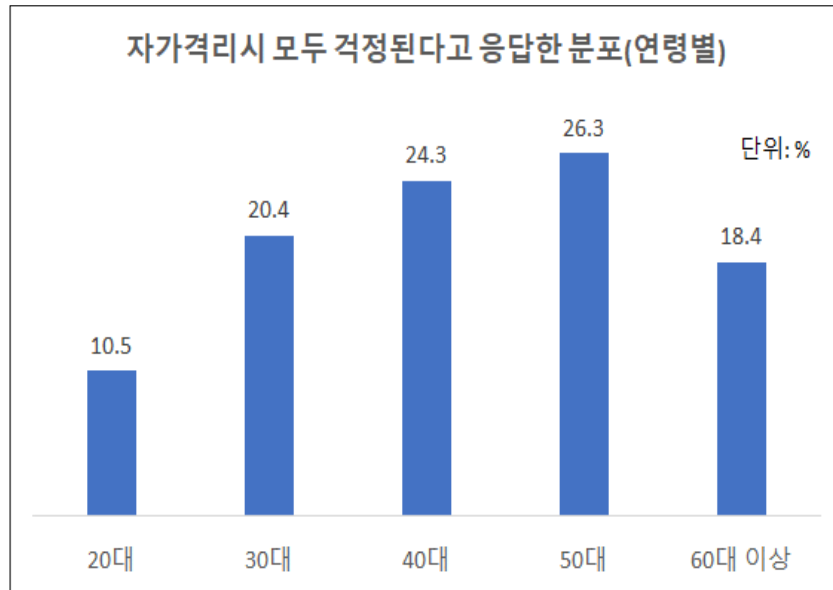
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해야된다면?

- “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가정할 때, 아래 사안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”

- ① 2주간 격리하기에는 내 거주 공간이 협소함
- ② 별도의 날 위한 격리 공간 확보가 어려움
- ③ 자가격리 중 식사청소 등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음
- ④ 2주 자가격리를 버틸 식생활비 등 예비금이 부족함
- ⑤ 자가격리 동안 내가 하던 일(업무학업, 가사돌봄 등)을 대체할 사람이 없음
- ⑥ 내가 하던 일을 멈추면 생길 경제적인 문제에 대안이 없음 (생계 문제)
- ⑦ 2주 간 격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음 (정서심리적 취약성)
- ⑧ 지연이나 취소하면 안 되는 중요한 치료/처치 일정이 있음
- ⑨ 지연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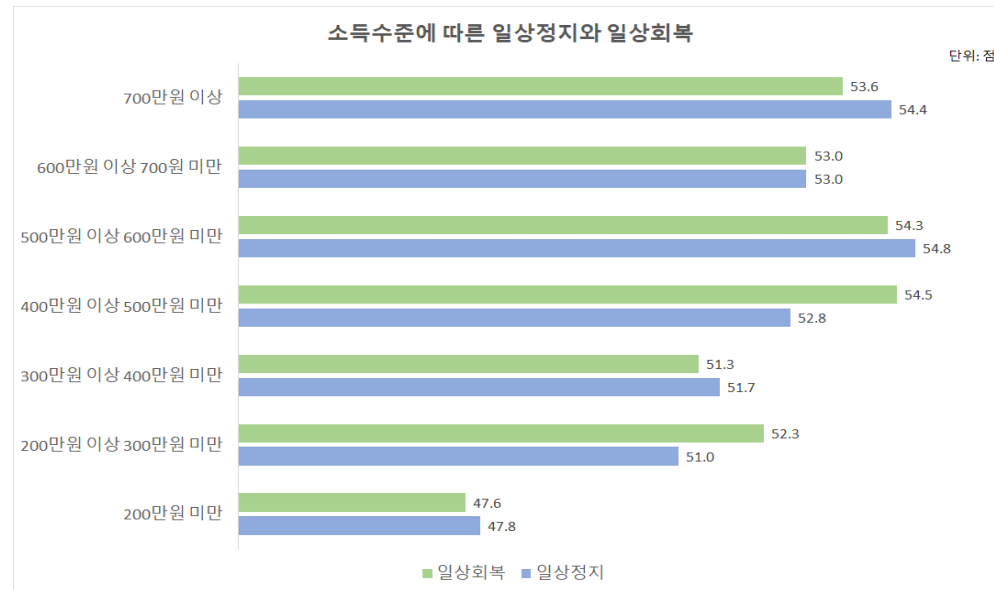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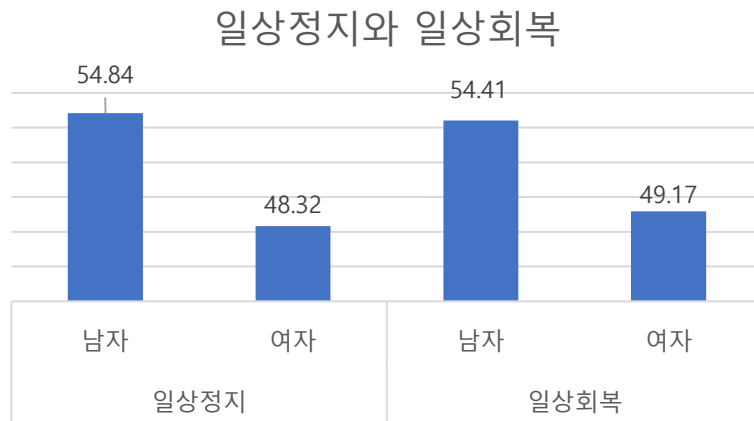


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해야된다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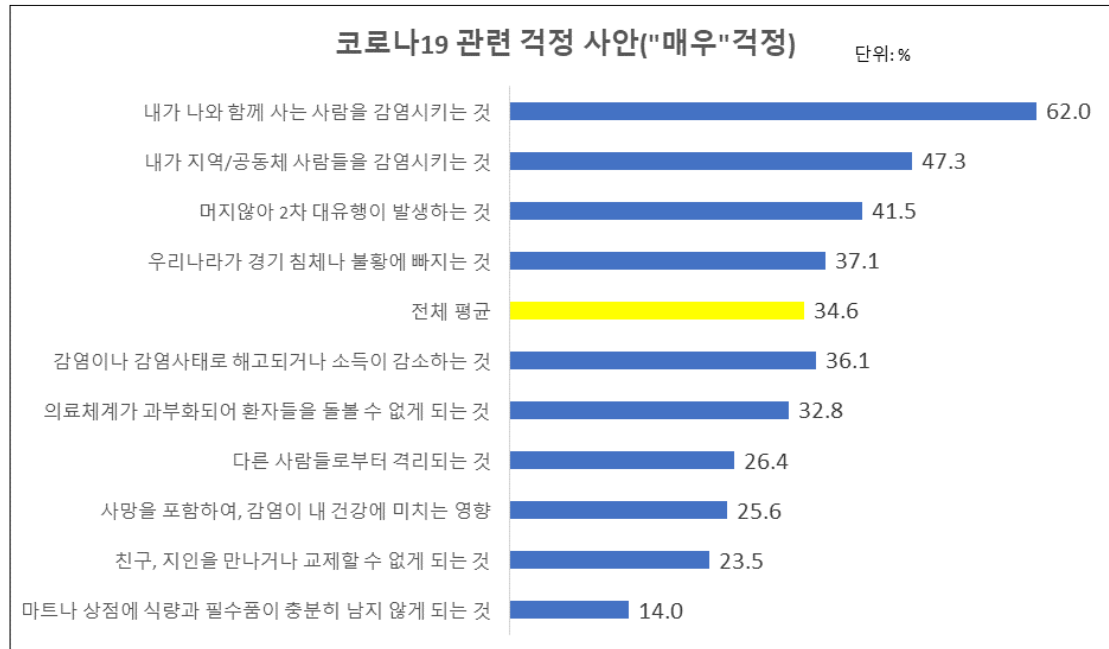


일상정지와 일상회복의 차이

- 일상정지: 귀하의 일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(점수 낮을수록 부정적)
- 일상회복: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하셨습니다 (점수 낮을수록 부정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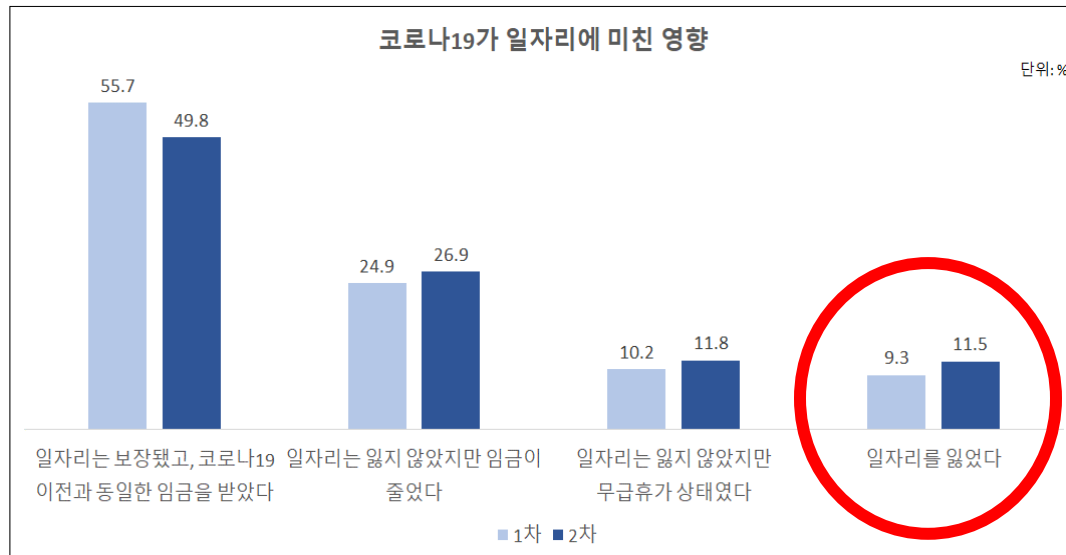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관련 걱정 사안



문항별 걱정에 대한 평균 점수

- 여성 > 남성
- 자영업자, 판매/영업/서비스 직 ↑

“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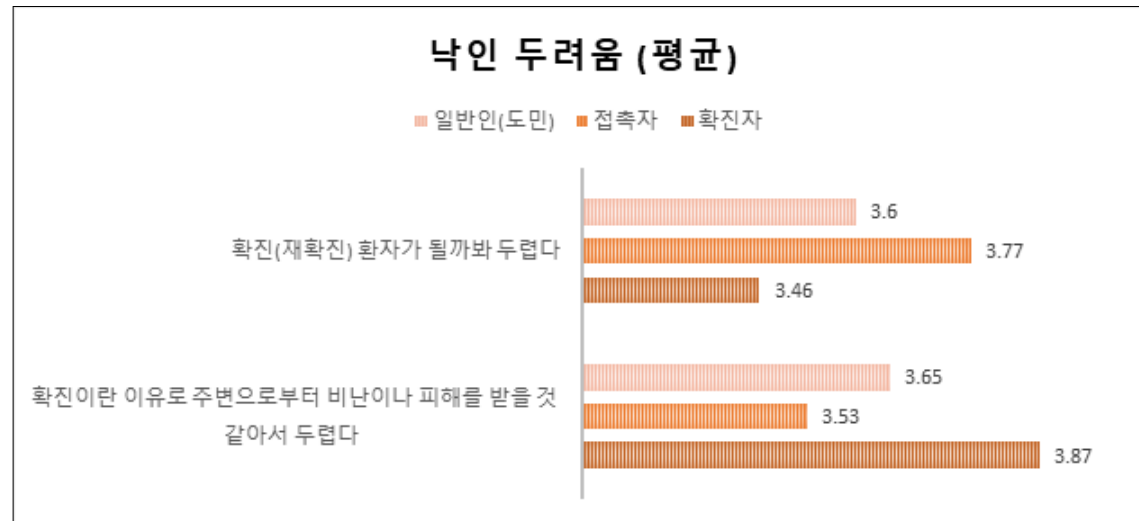


- 여성 > 남성
- 무직/퇴직/은퇴자 ↑
- 50대 ↑
- 월소득 200만원 미만 ↑

확진자와 접촉자,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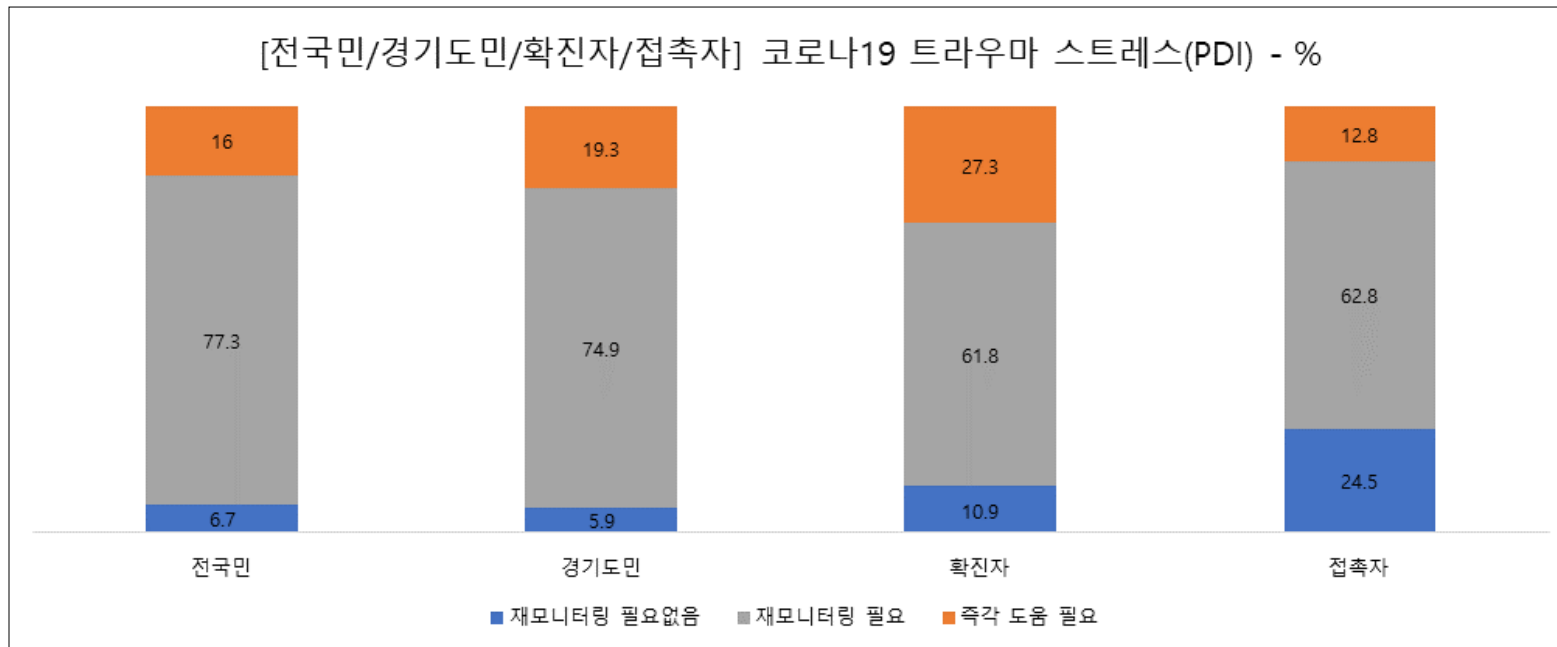
낙인에 대한 두려움

- 확진자들은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 두려움이나 재감염 두려움보다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음. 접촉자들 역시 감염 확진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는 접촉자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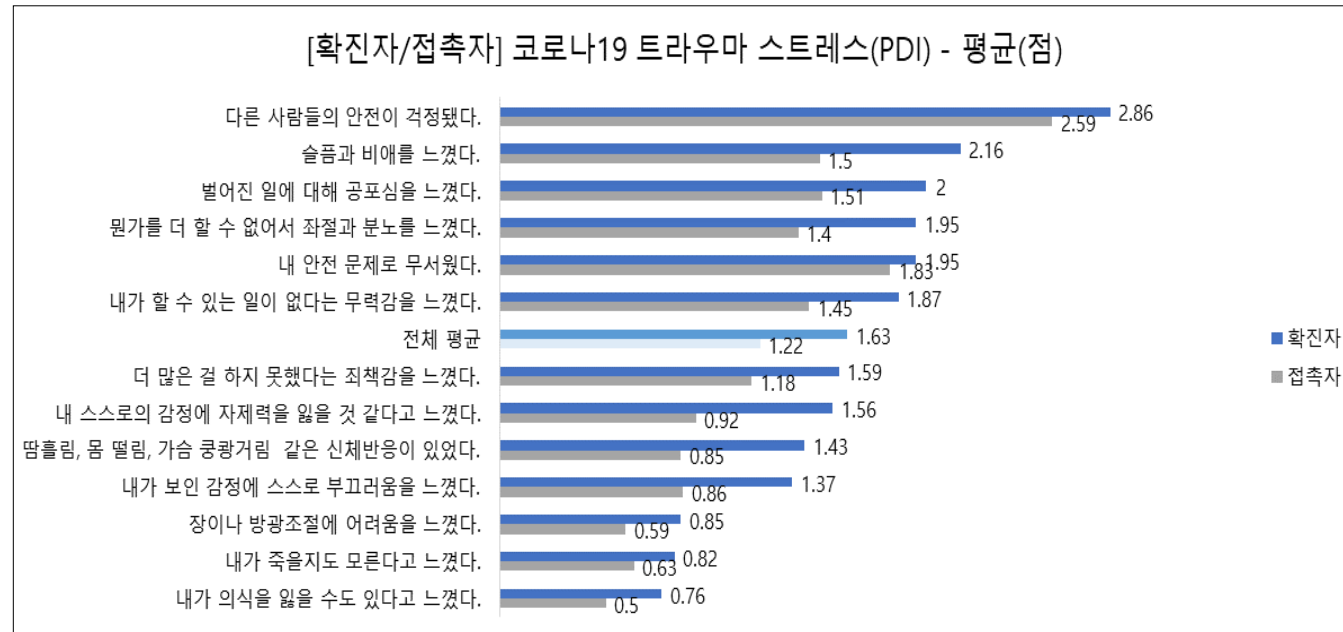
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

- 확진자 중 27.3%, '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'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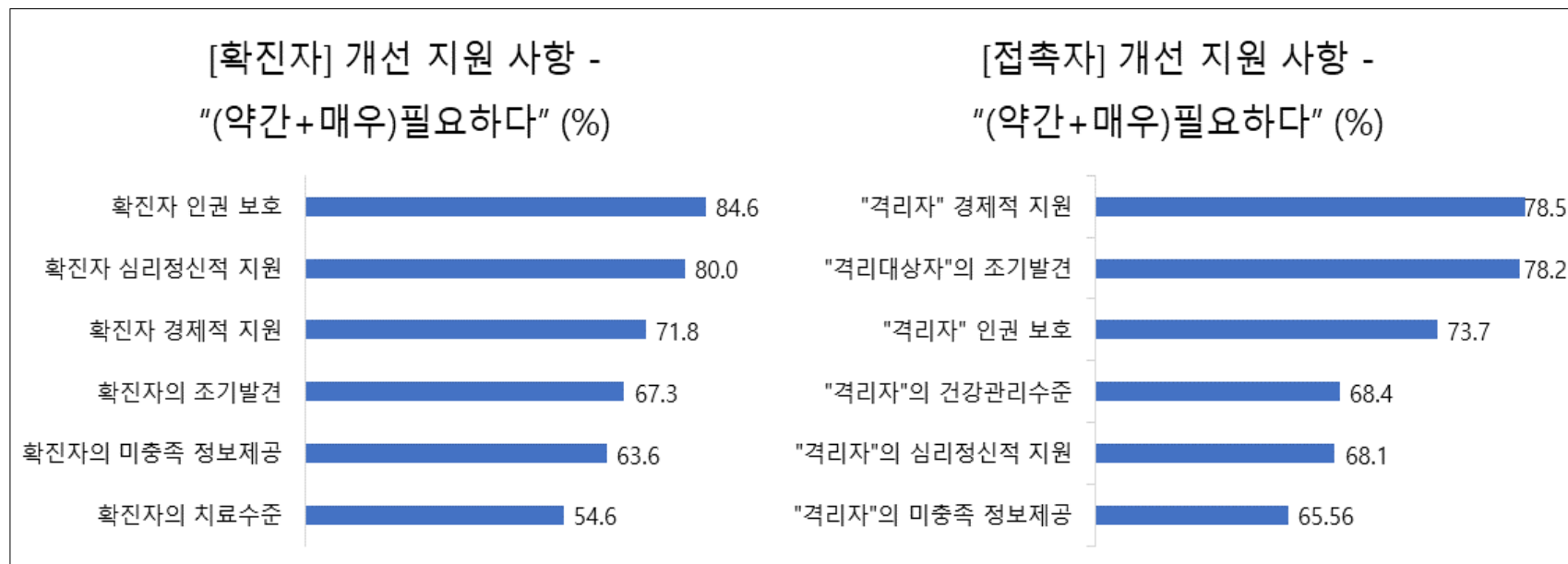


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

- ‘민폐’에 두려움이 스트레스 유발원인.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‘다른 사람의 안전이 걱정됐다’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아



확진자/접촉자 처우/대응 개선 요구사항



역학조사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

- 확진자
 - 확진자 직업군/작업현장 분석 필요
 - 취약한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
 -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못하여 위험이 높아짐 → 격리해제 이후 경제 문제, 직업안정성 더 나빠짐 →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음
-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
 - 증상발현일에서 확진일까지의 시간이 긴 이유는 다양하나, 수칙을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이 모두 있음(예, 당일 병가신청이 어려운 직종, 병가 자체가 어려운 사업장 등)
- 검사 결과가 더 두려운 사람들
 - 성소수자, 성노동자, 일용직/비정규 노동자 등
- 알지만 대안이 없는 사람들
 - 다단계/방문판매, 택배기사 등

역학조사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

- 자가격리자
 - 자가격리 14일이 힘든 사람들
 - 자가격리 환경 : 고시원, 쪽방, 노숙자 등
 - 자가격리 동안의 생계 : 격리보상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직업안정성
 - 특수상황 : 장애, 치매, 정신질환, 산모, 영유아, 투석환자 등
 - 자가격리자 필수진료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

역학조사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

- 의료진/방역인력/필수업무 종사자
- 숨어있는 취약계층

(참고) Principles for promoting compliance to NPI(ECDC, 2020.09.24)

- 능력(Capability)
 - 개인이 NPI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해당 NPI에 대한 이해임
 - 이를 위해 행동에 대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
 - 마스크 착용 또는 손 소독제 사용과 같은 일부 NPI는 관련된 물건들도 필요
- 기회(Opportunity)
 - 물리적 마커 및 채널을 사용하거나 특정을 장려하기 위한 잠재 의식 '넛지'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NPI를 수행해야하는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음
 - 안면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권장 사항이나 주문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저렴하고 수용 가능하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최적화 될 것임
- 동기 부여(Motivation)
 - NPI를 수행하는 것을 점점 꺼리는 상황에서 권장 사항을 계속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히 중요
 - 사회적 규범은 인간 행동의 핵심 결정 요소이므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오랜 규범(예 : 공동체 연대)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악수를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
 - 역할 모델을 통해 특정 대상 그룹 (예 : 의료 종사자, 청년, 노인, 소수 민족 및 종교 공동체)의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면 이러한 그룹이 존경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NPI 준수를 높일 수 있음

무엇이 필요한가?

- 현황 파악과 분석
- 상병수당 도입 + α
- 익명검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?
- 자가격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: 시설, 인력 등. 안써도 준비해놓기
-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보다 세분화/상세화되어 수용도를 높여야 함
예) 학교 등교 금지 vs 아프면 2-3일 집에서 쉬기
- 자가격리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확진자 진료체계와 함께 준비되어야 함

감사합니다

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gidcc.or.kr

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ggpi.or.kr